여·성·시·대·탄·탄·대·로·여·성·시·대·탄·탄·대·로·여·성·시·대·탄·탄·대·로·여·성·시·대·탄·탄·대·로·



칠천여학우의
친근한 벗으로
통일시대 여성시대를
대비하자!

기호 **3**번

여·성·시·대

탄탄대로

16대 자주적 여학생회
김고숙정·정고두리와
함께하는 식구들

탄! 탄! 대! 로!

여성시대

놓았던 길을 찾아가는 딸들이여!

여성공감의 역사로!



Running Rapidly

과연, 우리에게 자유는 존재하는가?

동성애자임을 밝혀 방송정지 조치를 당한 연예인을 보며 그에게 가하는 사회적 소외와 폭력이 "여성"에게 가했던 그것과 다름없음을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까?

감금되었던 매춘여성이 죽고나서야 사람들의 뇌리속에 잠시나마 그들이 인간이었음이 각인되었다.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남북정상회담 속에 여성은 여전히 주변인으로 남아있고 기지촌에서는 우리의 언니들이 미군범죄로 고통받고 있는데 한미행정협정은 고쳐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쑥덕거림'이 아닌 공공연한 '폭로'를 통해 개인이 실명을 밝히며 성폭력 사건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있다.

학교들은 성폭력 규제학칙을 제정하며 그 힘을 더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반개혁적 음모에 전체 노동자들이 싸우고자 하고 있다.

결혼을 거부하는 솔로가 늘고 있고 황혼 이혼이 이슈가 된 사회, 호주제 폐지로 이 모든것이 바뀔수는 없지만 이제 더 이상 가정안에서 여성이 부속물이 아님을, 그 억압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놓았던 끈을 찾아가는 딸들이여, 여성공감의 역사로 질주하라!

사회의 모습은 우리들과 떨어진 모습은 아닐게다.

내가 놓고 살던 문제들을 찾아나가는 순간부터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과거속에서 그리고 현실속에서 그 답을 해명하고자 한다.

결코 주저할 것이 없다.

놓았던 나의 것을 찾아가는 그 길에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정 김고숙정(정행언 · 99)

- 80 충남 서천출생
- 99 서천여고 졸업
  사회대 정 · 행 · 언 입학
  사회대 인권위원 역임
- 00 1학기 학생생활관 층장
- 01 총학생회 복지부장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 출범식 참가
  천명농활 햇살모듬 참가
  지역통일선봉대
- 현 자주적 여학생회장 입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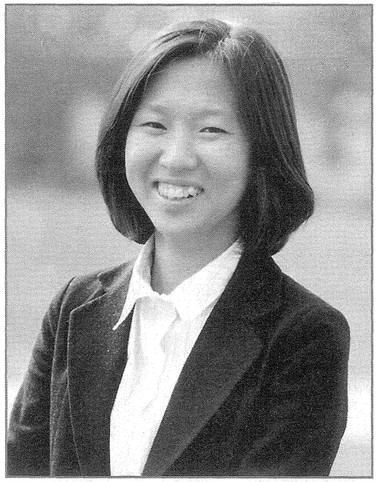
내가 살아온날의 흔적
그리고, 다시 쓰는 딸들의 역사
「여/성/시/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때론 옆에서 , 때론 앞에서...
많은 여학우들의 투덜거림을 하나로 모아
투덜거림이 아니라 당당한 목소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의 권리찾기는
여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만큼,
남학우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부 정고두리(가정교육 · 00)

- 82 전남 완도출생
- 00 승일고 졸업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입학
  「위풍당당」 자주적총학생회 선본 새내기 선전단
- 01 가정교육과 1학기 부과대표



내가 살아온날의 흔적
그리고, 다시 쓰는 딸들의 역사
「여/성/시/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학내에서도 사회에서도 ...
한 시대에 고통받는 여성들의 자주성과
진정한 권리를 당당한 이름으로 되돌려 받겠습니다.
쉽게 잊혀져 버릴지 모를 여성이라는 이름을
1만 7천학우들과 함께이야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숙정이와 두리와 통일로 한걸음

자주색 빌로드 한복에 흰 동정을 단 옷을 입고 다닌다는
미용술, 화장술, 미스코리아대회 같은건 없다는,
화장품을 살결물(로션), 입술연지, 눈썹연필이라 부른다는
이북여성들은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이북의 여성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직 서로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내 형제.,..

방북은 실현가능합니다.
김고숙정, 정고두리은
1만7천과 함께 이북에 갑니다.

김고숙정 · 정고두리 공감대

* 이북여성 바로알기 운동
* 이북여성들과의 실질적 만남!!
  1만 7천과 함께 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성폭력을 당하지 않고 죽은 여자가 있나?

담배 피우는 내게 보내는 비난의 눈초리,
내 몸을 더듬는 징그러운 눈길들,
나를 만지는 손길을 방관하던 옆사람의 미소,
나의 문제제기에 과민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의 한마디.
술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선배의 의미없는 행동,
첫날밤의 핏자국을 처녀의 순결함의 상징이라는 순결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은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감춘채
저질러 졌다.

김고숙정 · 정고두리 공감대

* 성폭력 규제 학칙과 자치규약 제정운동
  1만 7천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거든 모두 꺼져버려라!

남편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새댁에게 아들을 낳아보라고 말하는
조양희도 가라!

신부가 예식장에서 웃으면 첫딸을 낳는다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정은아도 가라!

이제 아들만 낳으면 백점이라고
이야기 했던 엄앵란도 가라!

당신들이 TV에서 그렇게 말하는 동안
죄없는 여아들이 일년에
3만명씩이나
낙태당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나?

김고숙정 · 정고두리 공감대

* 호주제 철폐운동
* 부모성 함께 쓰기
  (어머니성+아버지성+자기이름)
  1년에 7천명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http://www.wonkwang.ac.kr/~chongyeo



탄·탄·대·로

여성시대

기호 3번

하나,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하라!
* 단대별 여학생 휴게실 마련
* 학생회관 2층 여학생 휴게실 분위기 쇄신 (카페와 같은 분위기로...)
* 학생회관 3층 수면실 방음벽 설치
* 월2회 세탁
* 냉·온풍기 설치
* 화장실 개선(전신거울부착)

둘,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반대! 성폭력...
* 성폭력 규제학칙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자치규약 제정운동
* 총여학생화 홈페이지내 성폭력 신고 및 익명 상담소 설치
* 학내 성폭력 상담소 설치

셋, 우리의 눈으로 이야기 하자! 여성문화를 즐기자!
* 격주 페미니즘 영화제
* 대중강연회유치
* 2002 진짜 여성찾기대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
* 2002 멋진 남자 찾아나서기–여성에 대한 편견없이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사람!

넷,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회를 강화하자!
* 어떤 학생회든 총학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
* 단결만이 살길이다. 학생사회 내부에선 비판과 성찰을 ... 밖을 향해선 한 목소리로...

다섯, 이제 총여학생회다.
* 각 단대에 여학생회를 건설하자!
* 단대 여학생회 우수 운영대학 선정 지원사업–학생회비의 5%
* 각종 지원사업–학생회비의 15%

